

## 善惡-倫理學的 研究(八)

韓稚振

비록 이것은 卑□한 行動인 것 같으나 사람치고는 다 알고 잇는 事實이다. 옛던 사람이 내에게 私□錢을 傳한 故로 나도 그 私□錢을 他人에게 돌려보 내기를 例事로 生覺하기 쉬워진다. 이라하여 그만 그 私□錢 一分으로 因하 야 全 社會를 더럽피는 것이다. 이와 反對로 누가 내에게 禮節을 뵈이거나 補助를 할 時에는 나도 亦是 施助者에게만 안이라 隣近人에게까지 禮節다음 게 뵈이려하여 補助해 줄 生覺이 發함은 此亦 人情이라 하리로다. 이러한 模倣과 返報는 더욱 家庭 內에서 容易하니 子息이 그 父에게 受하는 教養은 一生에 影響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一種 遺傳的 影響이라 할 수 잇다. 이럼으로 如此한 行動에 對해서든지 그 判斷한 것을 調查해보면 그 判斷의 標準은 普通의 人類幸福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七.

여기서 以上 本論 初頭에서 示한 意志活動의 目標에 對하여 一言을 付하고 저 한다. 다시 말하면 意志의 活動의 根本的 目的은 무엇일까하는 그것이다. 여기에도 個我和 個我的 周圍의 幸福이라고 解答할 外에 他道가 없다. 그런데 옛더한 學者들은 그 意志의 活動目標는 普遍的이 아니라 利己的 個我的 幸福이라는 것이니 즉 利己的 或 個我的 功利主義란 것이다. 어느 누구나 恒常 서로 挑戰狀態에 잇다하였다. 一 個人 自己의 保存에 有利한 것은 善이요, 他人의 善한 點도 그 善이 自己保存 上 도아주는 그 만짐 善하다 하였 다. 이래서 이 自己保存은 적어도 自然律로 되어 잇스며 彼此 強掠狀態에 잇다 하였다. 이는 利己主義的 幸□主義라 할 것이다. 『소펜하우어[쇼펜하우어]』는 如此한 性質을 觀察하고서는 道德이라는 것은 自己 保存律을 脫하여 純 利他에만 限한 것이라 說破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純 自己保存律만도 存在한다 할 수 업고 純 利他律만도 眞理라 할 수 업는 것이다. 實로 말이지 어느 生物치고 自己를 썬나 他里만 爲하여 活動하리가

잇스랴? 自己와 關係업는 것을 爲한다는 것은 一種 妄說이다. 그런 故로 利己主義가 利他主義보다 事實과 符合된다 한다. 그러나 우리가 主張하는 利己主義는 『함쓰』의 主張과 判異한 것을 理解하여야 한다. 우리의 利己란 것은 利他까지 包含한 것으로 看做하나니 즉 他를 爲하여 엇던 個我が 利를 베프는 것은 곳 他我 兩者를 다 爲함이라는 것이다. 엇던 이는 여기서 反對하기를 나의 利는 남의 害가 된다하나 그러나 事實은 不然하다. 나의 利害는 他的 그것과 一致된다. 이는 以上の 良心節에서 說明한 바 있다.

個我라는 것은 他我와의 間에 居住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니 이럼으로 나의 利가 他에게 關係되고 他的 利害가 나에게 關係될 것은 必然의 勢이다. 그러면 나와 남과의 間에 利害를 均衡케하는 것이 彼此에 利가 된 것은 事實이겠다. 世上에는 純 自己를 爲하여 活動하는 이도 잇고 純 他를 爲하여 活動하는 이도 잇다하나 그러한 內容을 考察하면 實로 程度에만 分別이 有할 뿐이요, 自我와 他我를 모다 爲하는 것을 알 수 있다.